

외환관리 포럼



한국사료협회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금년도 제4차 이사회에 앞서 '외환관리 포럼'을 열고 삼성선물 외환전략팀의 장동주 과장을 초청하여 외환관리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. 다음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.(편집자 註)

■ 최근 동향

최근 대외적 불안감 완화와 한국 펀더멘털 호조에 따른 달러공급 물량 확대로 인해 '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점이었던 1050원선이 하향 돌파되며 1030원대까지 하락한 후, 외환 당국이 공식적인 개입에 나서며 1030원대에서 지지력 보이는 중.

■ 향후 전망

단기적으로는 달러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상승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**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** : 하반기 중 미국 경제지표 개선은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로 전환.

○ **중국 경기 둔화** : '14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.4% 감소하며 경기 둔화 우려감 확대, 위안화도 경기둔화 우려감 반영되며 '14년에 2.7% 절하.

○ **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** :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한국 경기둔화 가능성 상존.

○ **당국 개입 강화** : 달러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고 있지만, 추가 하락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금년 말까지의 예상 거래범위는 1030~1100원 